

두려움 많았던 신입에서 간호사로 성장



김 현 서
하남성심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을 들었을 때나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베풀목이 돼줬다.

팀 너정에 합류해 진지하게 인계를 하고 있는 지금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간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말 시간이 지나니 일하면서 재미도 느껴지고, 보람도 있었다. 전보다 더 품질의 검사준비와 간호처치를 하고 있는 나에게 스스로 많이 대견하고 뿌듯함도 느꼈다.

처음 EMR(전자의무기록) 접근 곤란한 부여받은 날은 너무나 설레면서 또한 얼마나 마음이 무겁던지. 내가 맡은 환자에게 간호를 잘 할 수 있을까? 환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까?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오늘은 어떤 환자를 맡을까하는 걱정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운 날도 있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칭찬 한마디, 회복되는 환자의 모습, 고맙다는 보호자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됐다. 환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는 시야가 넓어진 내 모습을 보며 서서히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더 커지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대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노력하고 있다.

환자의 입종을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부서 중 한 곳이 중환자실이다.

사명한 환자를 처음 봤을 때, 담당하고 침착하게 입종간호를 하던 선배님과는 달리 나는 당황한 체 자켜보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독여주시던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했다.

시간이 지나 이제 환자의 입종간호 시 침작하고 담당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마지막 생을 보내는 환자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 한 켠이 먹먹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낀다. 입종을 맞게 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애도의 시간을 주는 것, 슬픔을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한 간호의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쓴 소리도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시는 선배님들과 항상 힘이 되는 동기들, 저를 가르치느라 애써주신 프리센터 선생님, 앞으로 더 쑥쑥 커나갈 올해 입사한 후배들까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나은 참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간호 스타트업' 향한 첫 발걸음

내재시켜 사람과 사물 간의 의사소통기능을 이용하는 최소준속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을 정리해갔다.

팀원이 직접 그린 멋진 그림으로 구체적인 구상도를 그려 아이디어의 틀을 잡았다. 특히정보네트워크리스를 통해 등록된 디지털자산권을 검색하면서 우리의 아이템에 대한 자부심은 커져갔다. 상권 분석 및 손익분기점 추정 등이 이뤄졌고, 사업홍보를 위한 SNS 마케팅 계획을 완성해나갔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경진대회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는 수업시간 외에도 수차례 교수님의 연구실로 찾아갔다. 질문하고, 탐구하고, 해결하기를 반복했다. 그 결과 우리 팀은 간호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를 보며 간호실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호 대상을 위해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 간호창업은 한계 없는 발전이 기대되는 영역임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

비록 교내 창업경진대회였지만 '간호전문직과 창업' 교과목 수강 전과 비교해



정현이·최수지·최정은·추현지·한영현·허소희
(대구보건대 간호대학 3학년 창조적파괴팀)

대학병원 임상연수를 다녀와서



김 영 희
진주보건대 간호학부 교수

보니 뿌듯했다.

또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환자를 존중하는 간호가 임상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체감했다.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경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실감할 수 있었다. 퇴원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간호사 서비스 평가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환자의 의료경험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동실습에서는 마침 내가 가르친 제자와 함께 하며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됐다. 그간호사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임상에서 달라진 점 등을 설명해줬다. 환자의 욕망단계를 신호등으로 구분해 체위변경을 시간별로 할 수 있도록 침상에 부착해놓은 모습, 대상자의 요구에 보다 더 신속하게 응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수병동에서는 침상 챠로 환자 몸무게를 측정하는 환자 리프팅 기구,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장갑 억제대, QI 경진대회에서 출품된 환자 중심의 팔찌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EMR(전자의무기록) 실습도 했다.

신입간호사를 위한 교육도 인상적이었다. 환자체험을 통한 진정한 환자 중심 간호, 홀로서기를 스스로 선언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병원의 정책,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최신 교육자료 제공 등 간호사 한 명 한 명을 배려하고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교수임상연수를 통해 대학의 이론 교육과 임상의 실무교육을 연계할 수 있었으며, 졸업 후 즉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핵심적인 기본간호학 교육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됐다. 신입간호사 교육자료, 임상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신 기자재 사진 등은 기본간호학 강의와 실습지도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하게 임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기도 했다. 병원 현장에서 얻은 교육자료와 체험을 바탕으로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최우수 강의교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지금도 병원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를 간호사들의 노고가 있기에 '간호는 전문직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간호학생대회 참가 : 간호의 매력에 빠지다

2017 세계간호학생대회(Nursing Student Assembly)가 '인간적 돌봄을 위한 간호교육의 도전과제(Challenges of nursing education for the humanization of care)' 주제로 지난 5월 27일 스웨덴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간호대학생 최윤영(이화여대), 신채은(서울대), 박규선(전남대)을 선발해 참가비를 지원했다. 연세대 간호대학생 6명도 대학의 지원을 받아 참석했다.

세계간호학생대회에서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볼 수 있었다. 우리가 미래의 간호를 변화시킬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간호대학의 교육부터 바뀌어야 우리가 바람직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음을 느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이었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어 뿌듯했고,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다. 간호학생들 간의 강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세계간호학생대회를 통해 간호학이 떄때한 지식만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생활체계 생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늘 새로운 지평선을 여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호학의 전망이 밝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느꼈다. 그리고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세계간호학생대회에 이어 국제간호협의회(ICN) 학술대회에도 참석했다. 간호계의 폭넓은 분야를 보고 배운 것은 물론 나라별로 다른 문화와 역사에 따라 특화된 간호분야가 발전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각국의 특화된 간호를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본보기가 되는 간호모델을 벤치마킹한다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간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학술대회에서는 간호사를 적정인력 배치하는 세이프 스태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간호사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 감염발생률 등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연구결과에 근거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들은 메시지 중 하나는 '간호사가 건강관리의 핵심인물'이라는 것이다. 간호사 없는 건강 관련 정책은 의미가 없으며, 간호사들에 관한 결정을 다른 의료인들이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이끌어가기를 갈망하는가,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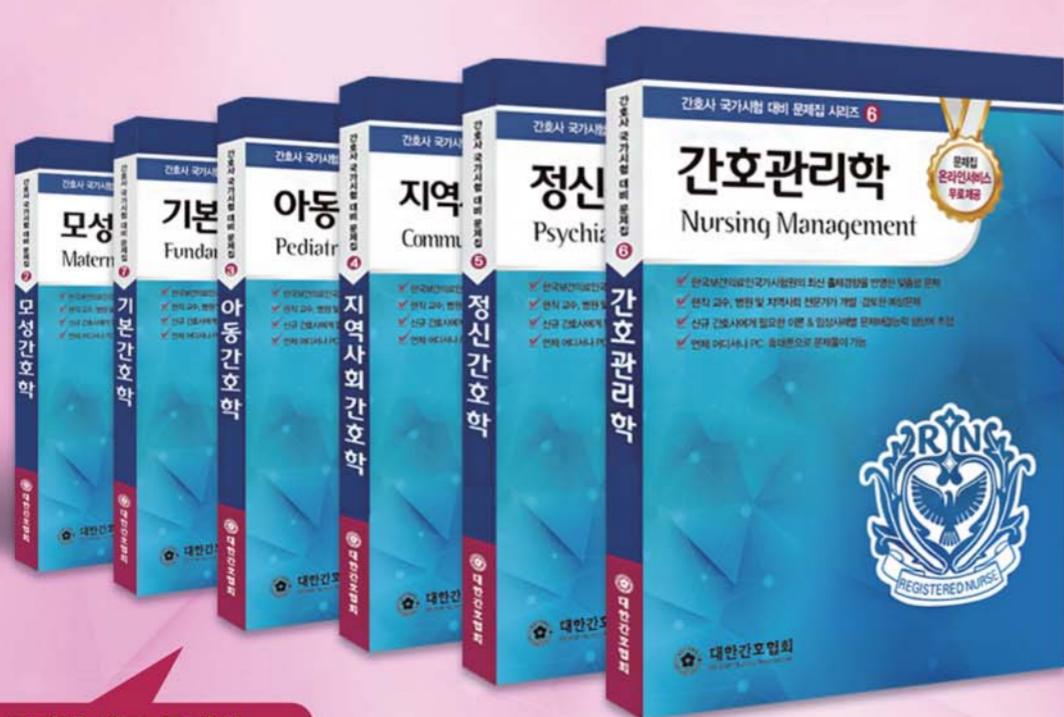
학술대회 참석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멋진 간호사 선배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자부심이 커졌다. 우리들도 앞으로 그분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박규선(전남대), 최윤영(이화여대), 신채은(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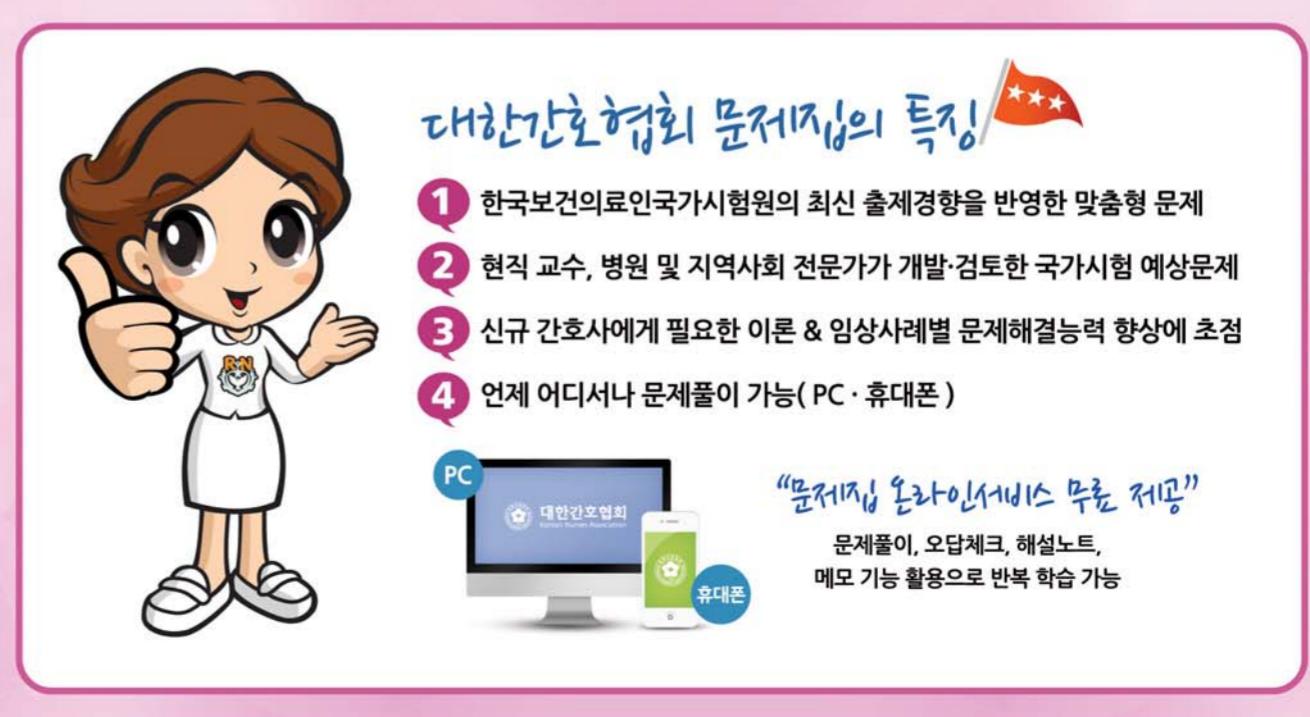
2018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마스터 시리즈

대한간호협회 문제집 출판!



문제집 세트 구매시

10% DOWN!
-북마크 사은품 증정 -



RNbook.or.kr은 대한간호협회 출판사가 운영하는 간호학 전문 도서몰입니다.
문의 : 대한간호협회 출판사 02-2260-2553